

여수산단, 화학기업 악취해소 동참

GS칼텍스·LG화학 기술 및 재정지원 ... 2013년 악취저감시설 설치

전라남도 여수 소재 화양농공단지의 악취 해소에 여수산업단지 대기업이 동참한다.

여수시는 화양농공단지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변의 학교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협력 관계인 GS칼텍스(대표 서진수), LG화학(대표 박진수) 등 여수산업단지 입주 대기업이 기술 및 재정지원을 약속했다고 9월25일 발표했다.

여수시는 GS칼텍스 협력사, LG화학 협력사, SFC(대표 박원기)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권고를 한 바 있다.

협력기업은 2013년 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농공단지에서 악취 요인 분석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화양농공단지에는 화학기업 12개, 금속기업 2개로 총 19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수년 전부터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다.

최근에는 농공단지 인근의 화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9/25>